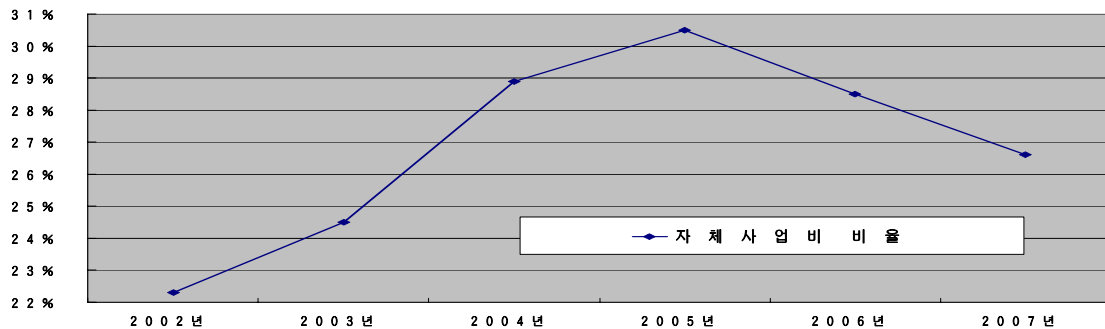


<표7>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「자체사업 예산」 현황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'02년	'03년	'04년	'05년	'06년	'07년
총 예산	911,154	975,256	988,924	1,070,625	1,154,722	1,119,864
자체사업 예산	203,543	238,496	285,956	326,112	328,817	297,536
(비율)	22.3%	24.5%	28.9%	30.5%	28.5%	26.6%

<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>



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예산 비율이 최근 4년간 감소하고 있으며(2004년 27.8% → 2007년 17.4%), 자치구 중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자체사업예산 비율이 2007년 11.9%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특히, 자체사업예산이 10% 미만인 단체가 총 21개에 달하고 있는데,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부담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.(부산 금정구 5.9%, 부산 북구 6.7% 등)

또한, 기능상 자치구보다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'시'와 '군'까지도 자체사업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이는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투자역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.(시 : 2005년 36.1% → 2007년 31.1%, 군 : 2005년 25.9% → 2007년 22.3%)